



국사학자의 책架

韓永愚 서울대교수



역사학자의 서기는 그가 연구하는 역사의 무게만큼이나 든중한 것일까?

일련의 조선전기사 관련저술로 이 방면의 든든한 연구업적을 보이고 있는 韓永愚교수(50·서울대 국사학과)의 연구실 서기가 그렇다. 경성제대 시절에 쓰였던 '유물'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검게 옷칠한 서기부터가 그렇고, 그것이 지탱하고 있는 갖가지 사료들과, 그 사료들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곱판내 나는 세월의 무게가 그렇다.

그는 요즘 이 서가들 속에서, 1981년 상재한 「朝鮮前期史學史研究」 후속편으로 「조선후기사학사」 및 「한국근대사학사」의 집필에 여념이 없다. "사상사 연구의 일환으로서, 역사의식의 형성과정을 규명해보겠다"는 그의 생각이 계획대로 옮겨올 안에 마무리된다면, 머잖아 우리는 그의 서가의 무게를 더하는 묵직한 역저 두권을 또다시 만나게 될 것 같다.

사진·주명덕

